

2019년 11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사무관 박유천(2522) / 제공 : 11월 12일(총3매)

연천군은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 [중앙일보 등, 11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연천군은 매몰하기 위하여 옮겨 놓은 살처분 돼지에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내렸으나, 양수기를 통해 침출수를 걷어내어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 조치함
- 2019.11.11일 중앙일보 <산처럼 쌓인 돼지사체 4만 마리... 임진강이 핏물로 변했다>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수만 마리를 임시로 쌓아 놓은 장소와 불과 50m 정도 거리의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해 하천의 군데군데 핏물이 떠 있음
- ☐ 불과 1km 하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침출수가 어젯밤 내린 많은 비에 하류로 대규모로 쓸려 내려갔을 까 걱정
- ☐ 매몰 작업현장에서 대규모로 핏물 등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것은 재난에 가까운 위험한 일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

- ☐ 연천군은 매몰 처리 과정에서 지난 11월 10일 ‘돼지 피’(이하 침출수)가 작업현장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하류 상수원인 임진강으로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긴급 차단 조치를 하였음

-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된 침출수를 수중모터로 흡입한 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였음
- 연천군은 상수원인 임진강은 매몰지로부터 약 16km 이상 떨어져 있으며, 11월 11일 인근 소하천을 점검한 결과, 추가적으로 침출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
- 연천군은 취수원에서 11월 11일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임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식품부, 가축방역지원본부 관계자를 연천군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, 연천군 매몰지 작업 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겠음
-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긴급행동지침(SOP)에 따라 매몰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는 한편,
- 농식품부·환경부·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몰지(101개소)가 적합하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일제 현지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
 - 매몰지 조성에 따른 침출수 유출 우려 등 환경적 우려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임

매몰지 주변 하천에서 침출수 제거작업



매몰지 하류부 3km 지점 점검 결과
(침출수 유입 차단)

